

## 2025 경기대학생뮤지컬페스티벌 예선 심사평

예년에 비해 월등히 성장한 각 학교 프로덕션의 완성도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해를 더해 가며 본 페스티벌의 의의가 보다 명확해지고, 대학생들의 열기가 높아지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아 반가웠습니다.

단지 학생들만의 열의가 아니라 각 대학의 교원을 포함해 참여와 경연의 열기가 높은 것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내의 대학들만 참여 대상으로 했지만, 작품의 완성도나 수준은 전국적인 규모의 페스티벌에 견주어 전혀 아쉽거나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훌륭했습니다.

예년에 비해 창작 뮤지컬이 늘어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여겨집니다. 올해 예선에서는 세 편의 창작 뮤지컬이 페스티벌에 참여했습니다. 완성된 공연을 시연해보는 수준을 넘어 새롭게 창작되어진 작품을 선보인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판단됩니다.

예선 참가작 중에는 외국 유학생들로 꾸며진 팀도 있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대사는 중국어를 활용하고 자막으로 우리말을 보여주며, 노래는 한국어 가사를 외워 무대에 막을 올렸습니다. 경기대학생뮤지컬페스티벌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그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실험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를 공부하려 경기도에 유학을 온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스스로 작품을 만들어 GUMF에 참여한다면 축제의 외연을 글로벌한 규모로 확장시키는데 아주 유리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매해 이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본선 진출의 문호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선 진출작을 대폭 늘릴 것을 제안합니다. 예선에 참여하는 대학의 수에 비해 본선 진출작의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대학생들이 만든 뮤지컬 작품이니만큼 교육적 가치도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성도 뿐 아니라 장래 발전 가능성이나 지역적 특성의 반영 등을 고려해 보다 많은 참가작들이 본선에서 각축을 벌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작품들의 외형적 완성도는 꽤나 만족스러운 수준을 보여줍니다. 보다 많은 경기도민이 학생들의 작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축제의 홍보에 노력을 경주해주길 당부드립니다. 그럴만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2025 경기대학생뮤지컬페스티벌 예선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원종원

심의위원 이종규